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남북 종전해도 미군 떠날 가능성 크지 않아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최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공동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전 이후 평시 국가가 된다 해도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데일리는 북한이 김일성 시절부터 “한반도 종전 선언과 미·북(美北)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해 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이내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해낸다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7월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상철 현(現)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07년에 내놓은 주장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격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한국에 왔다가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출로

논란이 일자 유엔 총회에서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즉 단순히 남북한 양측의 정전 협정 위반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을 포함하는 유엔사령부가 한반도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고 뉴데일리는 전했다. [GNPNEWS]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이사야 31:5)

기도 | 주님,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촉각이 곤두선 지금, 이 땅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공: WMM

- 니카프를 입은 파키스탄 여인들

무슬림

여성들은 외출할 때 몸이나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을 착용한다. 오른쪽 여성이 입은 얼굴을 다 드러낸 옷은 차도르이고 왼쪽 여성의 눈만 내보이는 옷은 니카프이다. 무슬림 여성들은 대부분 종교적 신념으로 정숙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옷을 입으며, 더 많이 가릴수록 더 깊은 신앙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더 많이 가린다고 정숙하게 되는가. 우리

의 마음 속에서 꿈틀대는 존재적 죄의 속성은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엔 은밀히 지은 모든 죄까지도 낱알이 드러나게 된다. 결국 모든 인류는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하

시고 수치를 가리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 선행의 니카프와 고행의 차도르를 벗고 십자가로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자. 오직 믿음으로. [GNPNEWS]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6-2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0)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지인의 간절한 권유로 교회에 나가 봤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당신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은 당신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아주 주관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신만의 세계관이 견고해지면서 당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편협하지 않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신 세계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경험을 남김없이 모두 수용해 당신의 세계관으로 삼아도 인간의 유한한 세계관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모르는, 그러면서도 속이 좁아터진 사람과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속이 좁 넓기만 해도 이야기가 통할 텐데.”라고 생각 하셨지요? 그 말은 “그



임리스트 김경진

가 받아들이기 아량만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뭘 모른다는 것이 아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고집하지 말고 성경적 세계관에 관심을 두고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

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싶습니까? 성경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한국

헤브론 선교대학교 초대 총장
유영기 박사 취임 2면

기획 |

배포하던 성경 뺏기고 불태워져...
남인도 크리스천들 박해 3면

인터뷰 | 김유경 집사

가정은 자녀들이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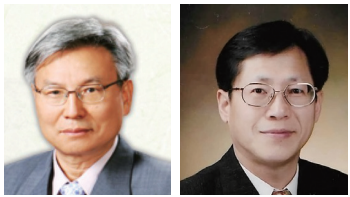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위기는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헤브론선교대학교 초대 총장 유영기 박사 취임



▶ 헤브론선교대학 유영기 총장(좌)과 복음기도신학연구소 김명호 소장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부르심을 받고 2017년 개교한 헤브론선교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전 합동신학대학 박사원장을 역임한 유영기 박사(사진)가 최근 취임했다. 유 신임 총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총회신학교를 거쳐 영국 더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복음기도신학연구소장을 지냈다.

유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설립된 이 학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름

받은 자”라고 전제하며 “이 학교 졸업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학교를 지향하는 이 대학은 2년간의 집중영성훈련을 받는 기본과정과 2년간 전문과정

인 단과대학을 통해 도제식교육으로 진행된다. 단과대학으로는 현재 교육선교대가 있으며, 내년부터 복음기도신학대, 이웃사랑대, 선교영어대, 전기대, 커뮤니케이션선교대 등 8개 대학이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이 대학 복음기도신학 교연구소 2대 소장으로 김명호 헤브론선교대학 성경언어대학 학장이 취임했다. [GNPNEWS]



아시아

김학송 선교사, 억류 동안 기도와 신앙으로 이겨내



▶ 미국 동양선교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김학송 선교사(출처: 유튜브 캡처)

1년여간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달 풀려나 미국으로 귀환한 김학송 선교사가 북한의 억류 기간 동안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선교사는 동양선교교회의 예배에 참석, “억류 기간 동안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기도로 베드로의 족쇄가 풀려났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기도로 재판도 안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선교사는 가족을 생각하고,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꿈을 꾸는 등 석방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그는 199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신학교를 다녔다. 이후 동양선교교회에서 20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북한의 곤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업연구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5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기 전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북한 보안기관에 의해 체포됐다. [GNPNEWS]

한국

‘청소년 대상 복음훈련학교 열린다’ 경기, 전주에서 7, 8월 열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음훈련학교가 경기와 전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청소년 사역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복음수련회 2018년 특별캠프 ‘Go Together(고 투게더)’가 7월 30일(월)~8월 1일(수)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경기도 광주 문광교회(최종덕 목사)에서 열리는 이 수련회 참가대상은 14~19세의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0일~7월 15일까지.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youthgnr)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섬김이도 신청받고 있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 010-3380-5781, 010-7331-7710, 이메일: nggn777@naver.com

전주지역 청소년 사역자들이 주관해 열리는 12기 청소년복음캠프는 8월 6일(월)~10일(금)까지 4박 5일간 열린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1일(월)~7월 10일(화)까지다.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



다. 단, 해외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섬김이도 접수하고 있다. 캠프 장소는 추후에 공지. 문의 ☎ 010-5146-4641, 010-3290-4316. 이메일: kkvision@naver.com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5.20~6.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네덜란드 법원, 처음으로 남녀 아닌 ‘제3의 성’ 인정 판결

네덜란드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림뷔르흐 지방법원은 이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원고에 대해 출생기록부에 제3의 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나님.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이 거룩한 질서를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창조질서로 돌이키는 네덜란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 속에서 생명 걸고 진리를 지켜내는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성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미 대법원서 승소

미국 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 주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웨딩케이크 사건 판결에서 ‘콜로라도 시민권 위원회’는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승리를 시작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불의를 돌이키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주님의 증인들을 이 땅에 더욱 일으켜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영역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회복을 속히 일으켜주시옵소서.

아프간 이슬람 지도자들 “자폭 테러는 죄악… 전쟁 중단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과 테러로 인한 인명 희생이 잇따르자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모임인 아프간 울레마 위원회 소속 종교 지도자 2천여 명이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슬람법(샤리아)으로 금지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이 이슬람법에 어긋나며 부당하다고 선언한다.”는 파드와(율법 해석)를 발표했다고 아프간 톨로뉴스가 보도했다.

하나님,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속임에 빠진 아프간 내전 속에서 생명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과 자폭테러가 샤리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자기이익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부으시고 아프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6월 18일~6월 30일

6월 18일~6월 23일

▶ 경기 부천 / 부천산동교회 (박**)010-3018-5519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6.18-19(06-18시) ▶ 전주 완산 / 전주사론교회 (진**)010-2638-1440
6.19(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6.19-21(00-24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6.18-19,21~22(매일 20-23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6.18,20-23(매일 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6.18-19,21~23(매일 20-23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6.18-19,21~23(매일 10:30-11시: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6.19-22(매일 10-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6.21(10-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6.22(10-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6.22(10-22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박**)010-9331-4039
6.22(10시)~23(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6월 25일~6월 30일

▶ 네팔 포카라 / 복음과기도의집 (김**)9803260969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010-3913-2677
6.25-28(매일 10-17시) ▶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 (최**)010-8373-1273
6.25-26,28-29(매일 20-23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6.25-30(매일 06-22시) ▶ 부산 남구 / 변영로교회 (고**)010-7176-6801
6.25,27-30(매일 10-12시) ▶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6.25-26,28-30(매일 10:30-11: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010-5528-5087
6.25-26,28-30(매일 20-23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6.26(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6.26(12-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010-2276-8221
6.26-29(10-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6.28(10-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6.29(10-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6.29(19시)~30(19시) ▶ 라오스 비엔티엔 / 라오스기쁜교회 (김**)856-20-5424-5705
6.29(10시)~3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기획

배포하던 성경 뺏기고 불태워져... 남인도 크리스천들 박해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인도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인도 복음주의 연맹(EFI)이 최근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핍박 현장은 올 초 텔랑가나 주, 나가르 커눌 지역의 싱고탐 마을로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힌두교도 한 명이 차 안으로 들어가 차 키를 빼앗고 나머지 힌두교도들이 성경을 차 밖으로 던진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야. 너희가 하는 일도 그래. 누구에게 성경을 주겠다는 거지? 감히 그러기만 해봐라. 여기서 꺼져.”

이어 그들은 성경책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리차드 닉슨은 인터넷 기독교언론 매체인 모닝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싱고탐 마을에 있는 학교 교장에게 성경을 배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갔다고 말했다. 이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규 학교였다.

“우리는 성경을 배포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 성경을 두고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우리에게 직접 나눠주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쁠 겁니다! 학생들은 한두 명씩 우리에게 와서 기쁘게 성경을 받아갔습니다.”

그는 170권의 성경을 배포했고, 80권짜리 신약성서 5박스가 남아 있어 마을 상점이나 행인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콜라퍼라고 불리는 락쉬미, 나르시마 스와미 사원에서는 한 남자가 와서 신약성서를 달라고 해 20권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락쉬미는 힌두교의 부(富)의 신이며 나르시마는 힌두교의 사자신으로 힌두 신화에서 부부로 여겨진다.

그러던 중 힌두 극단주의단체 10여 명이 나타나, 성경을 배포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누가 당신들을 보냈어? 왜



▶ 성경을 받아 든 인도 학생들(출처: 국제기독교연합회 블로그 사진 캡처)

성경을 나눠주고 있어?”라며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닉슨은 그들과 논쟁하기 싫어 가만히 있었고, 그들이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곧 떠나겠습니다. 싸움은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30년 동안 성경을 배포해온 경찰 출신 K.J.아난드한은 “힌두교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 아내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퇴한 노인들이었는데도 노인들에 대한 예절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말투는 무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성경을 배포하던 닉슨은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마을에서 시비를 걸었던 10여 명의 남자가 우리를 쫓아와 욕을 하면서 차에 있던 성경책들을 밖으로 던지며 성경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차를 출발시키려하자 힌두교도들이 차 안으로 뛰어들어 차 키를 빼앗고 성경을 찢고, 발로 짓밟았다. 그들은 성경을 찢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에 불을 지르면서 그 장면을 녹화했다.

마을 주민 A. 나바니팜은 그 녹화 영상을 보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경찰은 나바니팜의 진술과 녹화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최초정보보고서(First Information Report, FIR)를 작성하고, 가해자들을 구속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맞고소도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이 아직 법정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지방행정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폭행

을 가담한 사람들에게 대해 FIR 보고서를 썼지만, 이 보고서로 기소되고 법정에 선 사람은 없다. 경찰이 정말로 그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가해자들은 보석 불가 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 조항 295-A 규정에 따라 법정에 소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형법(IPC) 295-A조에 따르면, 종교적 감정에 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형이나 투옥, 또는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증거에 근

거해 기소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 당국에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폭력과 불합리를 넘어선 용서

한편, 기드온협회 관계자인 아난드한은 사건 발생 3일 후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소환됐다.

“주민 나바니팜의 진술 때문에 경찰이 힌두교도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수색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인 저와 아내는 온종일 경찰서에

잡혀있었죠.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공격이 있던 날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했고 기도하며 폭행법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고소도 하지 않기로 말이죠. 나바니팜은 우리 사건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한편,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했던 나바니팜은 “경찰이 이미 폭행법들을 체포했고, 사건은 끝났다.”고 모닝스타 뉴스에 말했다. [GNPNEWS]

성경 소각 그 이후

“찢어진 성경 읽고 삶이 변했어요”

인도 국제기독교연합회 나브닛 차브라는 모닝스타 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종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주지 못하게 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는 이 잠언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을 때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성경배포 이후 다양한 일이 나타난다. 그는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이 이후에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 들였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성경을 주워 읽은 후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례들도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감옥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기드온협회로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받아 읽고 나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께 성경을 불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증오심도 품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증가하는 공격들

인도복음주의연맹(EF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증오 폭력은 2014년에 147건, 2015년에 77건, 2016년에 230건, 2017년 351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연맹 대변인은 2014



▶ 나뭇잎으로 만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출처: myocn.net 사진 캡처)

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정권을 잡은 후 힌두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동맹정부(NDA)의 비힌두교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더욱 대담해졌다고 말한다. 인도 여러 지역에서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다.

EFI 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은 2007년과 2008년 칸드하말 프로그램의 집단 폭행 이래 인도 기독교공동체에게 가장 비극적인 한 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BJP가 통치하는 지역이며, 구체적 사례로는 신체적 폭력과 억류(110건), 협박과 괴롭힘(70건), 교회와 예배방해(64건), 무고한 억류(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건수도 4건, 성폭력도 2건이나 발생했다.

랄 목사는 3년 전부터는 교회 예배와 심지어 집에서 모이는 개인적인 기도모임까지 방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타밀 나두와

우타르 프라데시 같은 곳에서는 사법기관과 여러 법률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데 사용되고, 주 정부와 비정부 관계자들이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위협해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크리스천 박해는 항상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순절(4월, 54건)과 성탄절(12월, 40건) 기간에 더 많이 발생한다면, 12월에 마디아 프라데시의 사트나에서 힌두극단주의 폭도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전했다. 어린이들 역시 표적이 되어 성경캠프에 데려다주던 어른들과 함께 감금되기도 한다. 랄 목사는 “기독교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연합정부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중재를 촉구할 것입니다. 여러 주 정부들과 연합정부는 의미 없는 대답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과 법의 집행을 통해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편견 없이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성경이 불에 타는 모습(출처: morningstarnews.org 사진 캡처)



기획 | 조선선교열전 (23) - 제주도 편(5) 이기풍 선교사

악이 성행하는 때에도 긍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이기풍 선교사는 이호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통로가 된 김재원 장로와 함께 전도하여 얻은 홍순흥, 김행권과 함께 향교골 김행권의 집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행정기록상 첫 교회인 제주성내교회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조봉호 선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금성리의 기도 모임도 함께 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들이 세워져 갔다.

제주 초기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한 누군가의 집에서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같이 그들은 성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고, 참여인원이 늘어나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다른 성도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도저히 감당이 되

지 않을 때 예배처소를 짓거나 매입했다.

또한 제주 초기의 교회는 하나로 연합된 생명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교회였다. 네 구역, 내 구역 혹은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며 섬겼다. 먼 거리에서 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 여기저기 여러 곳에 기도 모임이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목회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며 목회를 해야 했다. 이기풍 선교사가 1915년 1차 선교를 마칠 무렵에는 제주도 성내교회를 비롯해 금성, 삼양, 성읍, 조천,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에 13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

그러나 제주에도 일제침략이라는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했고, 도민들을 강제징집해 군사시설을 세우거나 활주로를 닦도록 하는 등 과도한 노동을 시켰을 뿐 아니라 농사지은 것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약탈해 갔다. 그러다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던 어느 날 일본군은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연합군이 일본으로



▶ 제주도 송악산 해안에 일본이 만든 굴 형태의 군사 진지(출처: 문화유산뉴스 캡처)

진격할 때 제주를 먼저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규모 폭격을 준비한 것이다. 이를 '결 7호 작전'이라고 이름했다.

일본은 바닷가 절벽에 제주도민들을 끌어들여 굴을 파게 하고, 땅에도 보이지 않게 비행기 격납고를 만들게 했다. '가미카제(神風)'(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 2차 세계대전 말기 쯔젠제가 기울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을 바라며 편성한 자살특공대)라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기로 단행한 것이다. 격납고나 일본군이 파놓은 진지동굴은 지금도 제주 관광지에서 심심치 않게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군은 하늘의 도움을 바라며 연합군을 격퇴할 최후의 보루를

터뜨릴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히로시마 폭격 후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제주에는 통째로 불바다가 되는 길을 면하게 되었다. 히로시마에 폭격이 없었더라면 1945년 9월~10월 어느 즈음 제주도에 오키나와에 버금가는 대학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저 역사의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조선 팔도 중 가장 극심한 일본군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던 곳이 바로 제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압제당하며 고통받은 제주 땅을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에는 광복의 기쁨을 느

껴볼 겨를도 없이 '4·3 사건'에 휘말렸다. 이 사건이 일어난 1948년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지도자를 뽑는 5·10선거를 앞두고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였다. 이때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하며 일으킨 반란 중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폭동이 4·3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같은 남로당 중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과 경찰은 제주도 산간지대에서 가혹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9만 명의 이재민과 1만 명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좌우 이념 대립이 얼마나 큰 아픈 결과를 갖고 오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진실 논란을 일으키며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에 다가설수록 분명한 것은 인간의 악함이 드러날 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와의 싸움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GNPNEWS]

김성옥 선교사

참고문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선교 통신

에티오피아에 그리스도의 정의가 강 같이 흘러넘치기를

에티오피아 수상이 스스로 사임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반정부 시위도 잠잠해지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수상 아비이 아흐메드가 선출되었습니다. 새 수상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정권을 잡지 못해 반정부 시위에 앞장섰던 오로모 종족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림이고 어머니는 정교회 교인이지만 아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섬기는 보라나 종족 주변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는 에티오피아 내 소말리 종족 중의 한 종족인 가라 종족이 보라나 종족이 거주하는 모알레의 시외버스 정류장에 폭탄을 던져 9명이 죽고 6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게데오 종족과 구지 종족 간에 충돌로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를 장악해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지 자료 사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식들이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와 매스미디어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보라나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쪼록 아비이 수상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이런 혼란 없

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만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보르보르 교회

저희 집에서 약 165km 정도 떨어진 보르보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의 소말리 종족과 보라나 종족의 경계에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선교 전략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교두보로 삼

아 90% 이상이 무슬림인 소말리 종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보라나 지역 끝자락에 놓인 작은 타운이지만 보라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외지인들이 공무원, 교사, 상인 등 직업을 쫓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순수 보라나 교인들로 구성된 시골 교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인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보라나 새 신자들은 얼마 전 케냐에서 수입해온 보라나 성경책을 읽으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골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데르라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후 약 25명의 사람들이 모여 어느 성도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정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소속되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단 활동 저지 위한 기도 필요

지금 이곳은 영적인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과 신도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그들이 이단인지도 모른 채 한국인이 주관하는 대형 집회에 초대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원파의 수장이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연이 닿아 각 대학에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구를 매개체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큰 집회를 열고 있으며 수도에 큰 운동장과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고 복음의 진리로 구원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에티오피아= 이기형·성명현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은 자녀들이 복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김유경 집사(광주 문광교회)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 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김유경 집사(광주 문광교회)에게 기쁨 그 이상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터진 큰 울음과 함께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본 김 집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오늘도 아홉마의 특권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가정과 열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유경 집사를 만났다.

-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한 이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 후, 전도는 제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됐어요. 정해진 틀 없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캠퍼스 앞에서도 복음 기도신문을 가지고 전도했죠.

전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시나요?

“요즘은 교회 전도팀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전도에 늘 부담과 열정을 갖고 있던 목사님의 나눔과 권유로 전도팀이 구성되면서부터죠. 총 10명의 성도가 매주 수요일, 세 팀으로 나뉘서 주택단지, 공장, 근처 초등학교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에게 실제 된 복음을 나눕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는 신문 대신 직접 만든 과자를 가지고 나가죠. 이전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 몸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거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제게는 두 딸이 있어요. 30대 후반 쯤, 큰딸이 다니던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진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자주 교회에 나가자고 권하더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절에 나갔고, 교회에 안 좋은 인상 때문에 나가

야 하는 삶이 힘겹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힘들게 살아야 하지?’

아버지의 외도로 평생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어머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죠. 같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남은 두 딸들도 이런 삶을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살할 방법과 시기만 늘 생각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았어요.”

그때 전도사님의 추천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 훈련과정에 참석했다. 답을 찾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다.

-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어느 날, 제게 숙제가 주어졌어요. 제가 용서해야 할 10명의 이름을 흰 종이에 쓴 후,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라는 거였죠. 정말 유치했어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이름을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이들을 내가 용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10번째 되는 이름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순간 분노가 일어났어요. ‘10명 중 9명이나 했으니까 다 됐어.’ 종이를 구기고 버리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어요. ‘주님, 그 사람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저 용서 못 하겠어요.’ 발악을 했어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을 주님이 들추시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저더러 용서를 하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어요. 반항을 하는 날이면 많은 아이들 앞에서 뺨까지 맞았어요. 이 일은 제가 마치 잘못해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외도로 집에는 몇 달 만에 들어오시고 재산을 다 탕진하신 아버지 때문에 네 자녀를 홀로 책임지셨던 어머니께 저마저 힘겨운 짐이 될 수 없었어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늘 강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학년이 끝나자 교육열이 높으셨던 어머니가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켜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수치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거짓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죠.”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폭포처럼 터져 나온 울음

-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내면의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경아. 내가 이천 년 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어. 너의 수치를 알아. 너를 위한 수치였어.’ 십자가는 성경책에 간혀 있어서 제게 아무런 능력도, 상관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이유로 병든 자아를 끌어안고 있었던 나는 죽었다는 말이 믿어졌어요.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주님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진리를 다 알지 못해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죠. 그래서 한 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지막 이름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여태껏 눌러있던 울음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큰 울음은 처음이었어요. 그 일 이후, 제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제 존재가 보였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저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그리고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주님, 바보 아니세요? 전 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돼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울고 웃으며 울려드린 그 기도 후에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바보처럼 살게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찬양의 가사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말씀을 펴자 글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려져야 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선교단체의 훈련 속에서 열방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일 한 시간씩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다.

“2008년 주님이 총체적 복음 앞에 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복음을 다 알게 해주셨는데 또 6일간의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할

까 고민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었고, 하실 말씀이 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미처 다 몰랐지만, 복음 앞에서 저를 더 낮추시고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군요.”

-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일본에서 사업 중이던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병원에 입원했죠. 우리 세 가족의 유일한 재정 공급처가 완전히 끊긴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실제 그 상황들이 닥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차비가 없어서 두 시간을 걷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냉장고를 불들고 기도하기를 여러 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제가 거지같이 살까 봐 걱정하더군요.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나누고 안심시킨 후, 저는 남편 병간호를 위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회복되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랐어요. 또 그렇게 기도했고, 주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게 실제 된 복음을 남편에게 나누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나눴어요. 함께 살지 못한 딸들을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5일 후,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날 오후 3시에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도 못 받았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아들이 내 품에 있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거면 저는 충분했고 두 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게 행해주신 일을 딸들에게 나누고 장례를 함께 치렀어요.”

- 한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그 이후 또 어떤 믿음의 삶이 이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무너진 가정에서 자랐고, 제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대해 남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또 저와 열방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열방의 무너

〈6면에 계속〉



▶ 일본에서의 길거리 전도 모습

이전에 길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길에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남한테 피해를 주나?’라고 생각했고, 배척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사람들의 많은 거절 속에서 복음을 만나기 전의 저의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때론 주님이 위로도 해주세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나도 복음을 만났어요.’라고 외치고 가는 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전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커요. 전도는 어떤 결과나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의 끊임없는 권유로 나가게 됐죠. 교회에 다닌 지 2년째 되던 해 연말에 문득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변하고 싶어서 두 가지 결단을 했죠. 첫째는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자. 둘째는 십일조를 하자.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였던 저는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어요. 십일조를 결단한 일은 제게 큰일이었죠. 그런데도 마음 안에 갈급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행복한 척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4)

“위기는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시며,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하다(딤후 3:15~16).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성공적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생명줄처럼 잡아야 할 지침으로 주신 율법의 핵심은 단순하고, 확실하기 그지없다(신 6:4-9).

진리가 삶이 되도록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명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순종의 기준이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마음에 실체가 되도록 생명 걸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셨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부모노릇의 핵심 역할이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하나님

의 말씀은 가정생활의 완전한 지침이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모노릇, 자식노릇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질서와 원리가 말씀에 다 들어 있다. “길을 갈 때에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회생활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신 6:7) 삶의 모든 순간에 어쭙잡게 배운 죄인들의 지식과 사상과 가치관과 시스템이 아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은 뻗고, 짓밟고, 정복하라 말하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섬기고, 낮아지고, 주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은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다.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식과 행동, 인격과 모든 삶과 사역은 ‘말씀대로’여야 한

다. 성경의 사상과 원리가 삶과 사역에 배어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격과는 달라야 한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 믿는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무장하고,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이 땅의 지식과 방법과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성경 지식을 쏙 빼 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은 설교로 만족하고 삶을 알아서 똑똑하게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인격과 삶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말이다.

지금 온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이 위기의 때에, 한때 개혁되었던 교회마저 또다시 인본주의, 세속주의, 지성주의, 다원주의 등의 사상의 풍조에 무릎을 꿇고 있다.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성경책은 많이 갖고 있지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



일러스트= 노주나

겨 버렸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2016년 12

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헤브론원형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 모집 대상

2018학년 현재 4학년, 6학년, 8학년, 10학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에 희망하는 사람

2. 원서 교부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원서 접수 기간: 2018년 7월 9일(월)부터 ~ 2018년 7월 30일(월) 소인까지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아래 문의처 확인)

3. 입학설명회

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8년 6월 11일(월)부터 ~ 2018년 6월 30일(토)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할 것
*원서는 입학설명회에서 교부합니다.

4. 입학전형 일정

1차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2018년 8월 4일)
2차 면접 및 필기고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018년 8월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8년 9월 4일(화) 입학식

5. 문의 및 접수처

010-8344-1718,
010-5346-4642(입학사무처)
hebronschool@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구 시온수양관)

Interview

<5면에 이어>

십자가의 은혜로 가족의 하나됨을 경험하다

진 가정들이 회복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제 나이 41살쯤, 주님이 재혼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내저었어요.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저를 맡기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재혼은 죽음과도 같았어요. 이미 저는 실패를 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훈련학교에서 만나게 된 형제였는데, 처음에는 진리의 교제만 하다가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만남을 나눈 후, 재혼을 하게 됐어요.”

- 순종해서 이런 가정이네요.

“저도 말씀이 실체가 되는 가정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고통이 따랐어요.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가 없인 불가능했어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더군요. 아이들이 아빠의 본심을 이

해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의 마음은 우리 두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제든 열방에 가든지, 혹은 주님 품으로 갈 때 남겨진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 25살, 23살인 두 딸에게 직접 별든, 장학금을 받든, 공급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재정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28살이 되면 완전히 독립하라고도 했죠. 처음 저희의 마음을 몰랐던 두 딸이 많이 어려워했죠. 이제는 이해를 넘어 오히려 자녀들 통해 격려를 받아요.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큰 딸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죠.”

S.Y.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모습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내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보다 극복해야 할 영역을 주목하며 직임을 배정하고 있다. 덕분에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면 언제나 쉽지 않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선교사로 헌신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

현재 나는 행정업무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해외사역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 한인선교사 MK(선교사 자녀) 복음캠프를 섬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있던 것을 알았다. 게다가 다음세대에게 강의로 섬긴다는 통보도 받았다. 처음 유럽에 간다는 기쁨도 잠시, 내가 맡은 직임은 무거웠다. 아무리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위 사람들이 애기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과 평소애 친하지도 않았고, 특히 청소년은 무섭다는 생각이 있

었다. 하지만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구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을 준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사 13:2) 복음의 빛을 잃고 민둥산이 되어가는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라고 하셨다. 한 마디로 오버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네, 주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소리치고 손을 흔들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청한 아이들보다 4명이 더 참여해 30명의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었다. 9세부터 19세까지 다양한 나이.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할지 난감했다. 더군다나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 총체적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새벽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의 무리한 일정은 피할 수 없었다.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캠프가 시작됐다.



일러스트=김효정

나는 복음의 영광에 관해 아이들과 나누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눈빛은 정말 복음을 사모했다.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조는 아이도 없이 전심으로 복음을 들었다. 무겁고 염려했던 마음을 잊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다. 두 번째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복음에 부딪히며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하는 아이. 코피를 흘리며 복음을 듣는 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형을 발견하고, 억눌렸던 병든 자아에서 깨어나는 아이들을 보게 하셨다. 항상 배워도 변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신이 존재적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아이들에게 임한 복음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부모 선교사님들에게까지 흘러갔고, 때가 차매 그간 척박하게만 느껴졌던 유럽 땅의 문을 열어주시는 듯했다.

캠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다. 자비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난민사역을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긴 복음의 증인이

셨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한 자녀가 마약중독에 빠져 가정에 큰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어렵게 나눠주셨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유럽의 현주소를 보는 듯했다. 얼마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길 원하신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와 간구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다. 오늘도 쉬지 않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고백한다. 마라나타! [GNPNEWS]

김순애 선교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탈북자 99.6% 북한 종교자유 전무, 지난해 종교활동자 119명 처형



▶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김정일 초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는 모습(출처: VOA news 캡처)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는 북한에 지하교회의 현장을 경험한 한 증인의 고백을 담았다. <편집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월 말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가 담긴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당했으며, 770명이 수감됐다. 이 밖에 종교적 이유로 87명이 실종됐고, 48명이 강

제이주 됐으며, 44명이 몸에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 1만1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6%가 북한에서는 종교자유가 전무하다고 답했다. 1만2032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2%에 불과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개인우상화에 위협이 된다고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주민들도 기독교는 곧 악이라는 교육을 받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남한에 사는 배 씨는 신앙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종교정책에 따라 감옥에 갇혔던 북한 지하교인 출신이다. 그는 북한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그의 증언을 따라 쓰인 에릭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소리 대표)의 책 ‘민음의 세대들-북한의 지하교회 후손이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교도소에서 벌레처럼 취급 받았다. 13개월 동안 매일 일상이 똑같았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바닥에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가고 난 후에 17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나의 무릎 위에 손을 얹어 놓은 채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했다. ... 모기에 물려도 움직일 수 없었다. ... 어떤 벌칙은 30분 동안 머리 위에 물이 가득 찬 사발을 이고서 무릎을 구부린 채 서 있어야 한다.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막대기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맞는다. ... 죄수들은 30분 동안 창살에 매달리거나 나무 바닥을 가로질러 벌레처럼 기도록 명령받을 때도 있었다. 1년 이상을 하루에 17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전도자이자 순교자인 고(故) 김익두 목사의 손자며느리 박한나(가명) 목사는 두 번 탈북했다가 두 번 복송되었고, 크고 작은 감옥을 열 군데도 넘게 갔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에서 미국 출신의 한인 목사를 만나 복음을 접하고 보위부로 끌려갔다. 남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했다. 감옥 안에서는 일회용 종이컵만 한 다썩은 옥수수 밥 덩이를 주는데 남편은 자기 밥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낮에 죽도록 고문당하고 다 퍼져서 감옥에 처넣으면 밤에는 몸을 질질 끌고 기

어 다니다시피 하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고문으로 망가지고, 온몸에 있는 살을 칼로 긁어도 1kg도 안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면회를 마친 뒤 순교했다. 북한 보위부는 그를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중국에 도망갔다가 남조선 간첩 안기부를 만나 간첩 임무를 받아 온 자로 여겼다.

보고서는 17년째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된 북한에서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2002년에는 0.016%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1998년 국제종교 자유법에 따라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자유아시아(RFA) 보도에 따르면,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 자유 담당 대사는 5월 29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종교자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NPNEWS]



순종의 삶 영광의 삶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 잘못을 범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미 이루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나 우리가 구하는 그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구한다. 우리의 의심이 성령 충만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자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상황에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되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다(삼상 15:22).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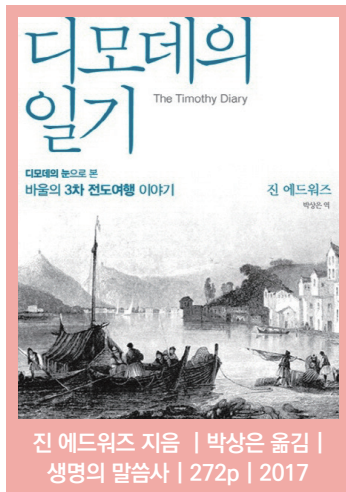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판>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진 에드워즈 <디모데의 일기>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교회를 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중 클라이맥스 13장, 사랑장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즉 교

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저자 진 에드워즈는 디모데의 눈으로 일기를 쓰듯,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는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그린다. 바울은 이 여정을 통해 에베소에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 젊은이들을 제자로 양육할 꿈을 가진다.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안디옥 사람 디도와 같은 시리아, 그리스 등의 이방인 젊은이들이 에베소로 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양육하시듯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며 삶으로 본을 보인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의하기 어려우니 보고 배우라고 말한다. 또 교회를 향한 자신의 태도를 배우라고 말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나 신자들을 꾸짖지 말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우하라고 말한다. 당시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의 복음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를 거짓으로 위협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싸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지기로 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불을 통과한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선택했을 때 바울에게 그것은 더없는 기쁨이었다.

“나는 경고를 하거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작정이야. 내게 집을 지을 터는 그리스도시네. 건축 재료도 그리스도시고, 모퉁잇돌 역시 그리스도시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의 생명으로만 섬기는 것이다.

나는 7년간 큰 공동체에서 지내다 4개월 전에 국내의 한 지역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왔다. 기도로만 만나던 동역자들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니 교회가 겪는 압박과 박해를 조금이나마 맞볼 수 있었다. 그

리스도로 시작된 신부된 교회들이 율법주의의 불을 만난 것처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도 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무엇이든 노력하고 싶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는 부흥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에게 더욱 그리스도만 남게 할 것이다.

내게도 주님은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 최근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겼다.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음은 믿지만, 마음은 얼마나 쪼그라들던지... 우리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있는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영광스럽게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터도 그리스도시고, 건축 재료도 그리스도시고, 모퉁잇돌 역시 그리스도시다.

저자는 바울이 처음부터 사나흘 길에 하나씩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꿈을 꾸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꿈은 로마 교회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에클레시아를 세워나갔고 리더들을 양육했다. 이 책의 말미는 바울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에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와 씨름하다가 주님께 맡겼다. 그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가 했던 가장 큰 사역은 기도였다. 불과 같은 연단을 통과하는 한국 교회를 본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한국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정결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제는 실제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교회의 역할만 남았다. 모든 교회가 이 기도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독수리 타법을 벗어나며 깨달은 ‘십자가의 자리’

컴퓨터를 만난 지가 어언 30여 년이 되어간다. 처음 만난 컴퓨터가 286이다. 어찌나머로 배운 것이 전부이기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는 일상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 비록 독수리 타자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주님은 이 독수리 타법에서 벗어나달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몇 번 타자연습을 하면 독수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젊은 지체들이 이 부분을 잘 섬겨주어서 오히려 마음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다. 복음의 내용을 정리할 마음을 주셔서 강의내용을 녹취하려는데 영상 10분을 3시간에 걸쳐서 받아 적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했다.

독수리를 탈출하려면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하던 독수리 타법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해야 했다. 30여 년 익숙한 손가락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

겠기에 자판이 익숙해지기까지 절대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불펜을 사용했다. 글씨가 엉망이어서 정말 글씨 쓰는 것이 싫었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시간만 되면 타자 연습을 시작했다.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 긴 글 연습.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한계가 왔다.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눈은 빠질 것 같고, 손가락은 쑤시고, 손목은 석고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꼭 이래야 하나? 내가 안 해도 다른 지체들이 하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타자 연습이야?’ 수많은 생각의 공격들이 올 때마다 옆에서 지체들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손가락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타자 소리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끝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숙달된다는 지체들의 격려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타자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알게 하신 것은 ‘자리’였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 자리를 놓치고 엉뚱한 자음, 모음을 누르게 되고 글자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시 104:9)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6~7)

경계를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 죄가 생명에 들어오자 그 경계를 허물고 싶어하는 인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생각났다. 결국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한 천사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지 못하므로 그 이웃 도시들까지 같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게 하여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는 거울이 되

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런 사탄의 모습까지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소홀히 여기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내 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다.

자판의 손가락 자리에서 조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 약 두 달이 되어 간다. 영상을 보면서 녹취를 하는 정도까지 주님이 독수리를 탈출하게 하셨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별게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보게 해주셨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한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글자가 되고 다른 문장이 되듯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임을 다시 기억한다. [GNPNEWS]

김이순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5. 18 ~ 6. 6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경선 김경숙 김보배 김성훈 김수미 김애심 김유남 김장일 김혜신 노은옥 박성규 박숙자 박승은 송경희 안민자 안수경 안은경 안현숙 유자민 윤경석 은종숙 이남경 이남준 이란영 이정희 정영숙 정은채 정일중 조경미 조명숙 주유순 차정규 하은숙 한홍자 허슬기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문광교회 빛의열매학교 산돌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전주은혜성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트리니티신우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